

# 손흥민 시즌 16호골...차범근 19골 기록 넘본다

EPL 31R 토트넘-스완지시티  
후반 추가시간 역전 결승골  
EPL 9호...기성용 기록 넘어  
4골 추가뎀 亞 유럽무대 최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5·토트넘)의 득점 행진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스완지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스완지 시티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리그 경기에서 9골, 시즌 전체로는 16골을 기록하며 최근 절정의 득점 감각을 이어갔다.

그는 2일 번리와 리그 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었고 이날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다.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올린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중전에는 손흥민 외에 기성용(스완지 시티)이 2014-2015시즌에 8골을 넣은 바 있다.

이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 최고의 무대’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시즌에 10골을 넣는 기록에 도전하게 됐다.

리그 10골은 축구 선진국인 유럽이나 남미 출신 중에서도 내로라하는 선수들만 올 수 있는 고지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 경기에서 10골 이상 넣은 선수는 16명에 불과하다. 프리미어리그 팀이 20개인 만큼 한 팀에 한 명꼴도 안되는 숫자다.

따라서 한 시즌에 리그 경기 10골은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매김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또 자신의 유럽 무대 시즌 최다 골 기록도 눈앞에 두게 됐다.

손흥민은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던 2014-2015시즌에 총 17골을 작렬했다.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자신의 시즌 최다 골 기록과 동률을 이룰 수 있다.

현재 객관적인 수준이 분데스리가보다

역대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



높다는 평을 듣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이상을 넣게 될 경우 2년 사이에 손흥민의 기량도 그만큼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차범근 차범근(64) 2017 국제축구 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역 시절 세운 한국 선수 유럽 무대 시즌 최다 골 기록 갱신 가능성도 커졌다.

차범근 부위원장은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던 1985-1986시즌에 총 19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남은 경기에서 세 골을 더 넣으면 차 부위원장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만일 네 골 이상을 보태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시즌 20골 고지도 밟을 수 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리그 8경기 와 FA컵 준결승 등 최소한 9경기를 남겼다. FA컵 4강전 결과에 따라 경기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아시아 최초의 리그 10골에 필요한 한 골은 충분히 가능하고, 네 골이 남은 시즌 20골 고지 역시 도전할 만한 수치다.

한편 무릎 부상으로 한 달 반 동안 결장했고 직전 미들즈브러전에서 벤치를 지켰던 기성용은 이날 후반 27분 노론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5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스완지시티 AFC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2-1 역전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동욱 “내 수비 노하우는 의심”

“공은 등글고 어디로 튈지 몰라 더 집중하게 돼”  
“안치홍과 2루 경쟁...하고픈 플레이 맘껏 할 것”

“공을 의심해야 해요.”

KIA 타이거즈의 멀티플레이어 서동욱이 말하는 수비 노하우는 ‘의심’이다.

서동욱은 지난해 무조건 트레이드로 넥센에서 친정 KIA로 돌아왔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트레이드지만 서동욱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지난 시즌 KIA의 중심 선수가 됐다. 프로 처음 두 자릿수 홈런을 넘긴 그는 0.292의 타율과 함께 16홈런 67타점을 만들었다.

타석에서의 득점했던 활약도 활약이 만 전천후 수비수로서 보여준 서동욱의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안치홍의 빈자리에서 주전 2루수로 활약한 그는 1루는 물론 우익수로도 나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줬다. 흐름을 읽는 재치있는 수비도 여러 차례 선보이며 ‘멀티플레이어’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4일 SK 와이번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역시 서동욱이다’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0-1로 뒤진 2회 무사 1루에서 2루 베이스 옆을 빠져나가는 이재원의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은 그는 손이 아닌 클러브 그대로 유격수 김선빈에게 공을 토스하면서 멋진 병살타를 만들었다. 포구와 송구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만든 수비는 승리의 발판이 됐다. 이날 선발로 등판한 양현종이 초반 불안한 제구를 보이는 가운데 앞서 2루타에 이어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흔들리던 상황이었다.

당시 병살 수비에 대해 묻자 “제가 잘한 거죠”라며 웃음을 터트린 서동욱은 “수비 나가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좌측, 우측, 정면 등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 준비했던 상황이 오면 주저 없이 플레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호당하게 웃기는 했지만 서동욱의 2017 시즌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올 시즌 안치홍이 돌아오면서 치열해졌던 내부 경쟁, 부상으로 한 박자 쉬어가고 있는 안치홍이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다.

서동욱은 “매년 똑같다. 내 지리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날보다 앞으로 야구를 할 날이 더 적기도 하다. 하고 싶

은 플레이 마음껏 해보자는 생각이다”며 “아침에 나올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한다. 상대 선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 시험 전에 미리 생각했던 것을 간추려서 시험을 준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분주한 수비수이기도 하다. 어린 투수들에게 파이팅을 외쳐주고, 수비진에 이야기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서동욱은 “2루수가 할 일이 많다. 베이스 커버도 들어가고, 후배들에게 상황상황에 대해 이야기도 해야 한다. 나중에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동생들이 편하게 알아서 잘 움직이고 수비들을 하게 될 것이다”며 “수비를 하면서 공을 의심하려고 한다. 공은 등그니까 어떻게 튈지 모른다. 더 보고 집중을 하게 된다. 집중하다 보면 긴장감도 줄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정감, 야구 센스로 표현되는 서동욱의 수비. 공격적인 부분은 조금씩 끌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난 시범경기에서 안타(6개)보다 삼진(8개)을 더 많이 기록했다. 우려의 시선에 대해 “시련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서동욱은 “장타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다. 시범경기라서 테스트를 해봤다. 최대한 공을 오래보려고 했다. 그러다 마지막에 스윙을 빨리하다 보니 스윙이 커졌던 것이다. 시범경기라서 시험을 해본 것인데 나에게 잘 맞지 않은 것 같아 앞에도 놓고 타구를 하려고 한다. 좋은 시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임기영에 바라는 것? 오래 던져 주는 것”

덕아웃 T 특특

▲보기만 해도 떨리고 좋아요 = 할 일 많은 신인이지만 1군 무대에 있는 자체가 행복한 ‘대졸 루키’ 박진태다.

6일 훈련이 끝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던 투수들 사이에서 박진태에 시선이 쏠렸다. 스카이크, 음료수, 공 박스를 드느라 손이 부족했던 그는 머리에 글러브까지 이고 등장을 했다. 막내라서 음료수와 공을 챙기는 등 할 일은 많지만 표정은 밝다.

박진태는 “경기장에 앉아 경기를 보고 선배들을 보기만 해도 떨리고 좋다. 개막전 때도 경기만 생각했는데 이름이 불러서 인사를 하러 나가니까 신기하고 좋았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느낌도 다르다”며 “장점을 극대화해서 하기 위해 직구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등판하게 되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래 던져주는 거죠 = 6일 KIA의 선발은 사이드암 임기영이었다. 전날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임기영은 바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하루 더 기다려 데뷔전에 나서게 됐다.

경기 전 취재진을 만난 김기태 감독은 “(선발 등판을) 기다리는 이들 동안 이 길이었을 것이다. 사기 문제도 있고, 핵타가 하루 더 쉬고 던져도 좋을 것 같았다”고 핵타가 아닌 임기영을 그대로 선



KIA 투수조 막내 박진태가 6일 훈련이 끝난 뒤 공과 음료수 등을 챙겨 이동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발로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임기영에 바라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래 던져주는 것이다. (오래 던지는 것은) 잘 던진다는 것이니까”라며

웃음을 보였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 SK와의 홈 개막전이 열린 지난 4일,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던 버나디나는 경기 시작과 함께 노수광으로 교체됐다.

장영 증세로 경기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버나디나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병영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5일에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버나디나의 출전 여부에 대해 김기태 감독은 “오늘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예고를 했고 6일 원래 자리인 1번으로 선발 출장했다.

이날 버나디나에게는 기다렸던 소식도 전해졌다. 기존에 미국에서 사용했던 배트가 KBO 공인 배트 절차를 통과하면서 익숙한 장비를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삼진도 없고 볼넷도 없어요 = 팀에서 유일하게 삼진이 하나도 없는 김주형. 6일 훈련을 앞두고 김주형은 “아마 우리 팀에서 삼진이 없는 선수가 나타나 볼넷이 있다”며 “그러나 볼넷도 하나 없다”고 웃었다. 그만큼 김주형이 신경 쓰는 부분은 ‘공을 맞추는 것’이다. 김주형은 “공을 맞춰야 무엇이든 결과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